

## 예수님의 신성

로마서 1:4 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공부를 하십시오.

로마서 1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 은 예수님의 신성을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1 :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은 the Spirit of holiness 인데 이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된 곳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결의 영이 인성을 가지신 죄없는 예수님의 깨끗한 영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성결의 영은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론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11 에 의해서도 지지지를 받습니다.

로마서 8 :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킨 성결의 영’은 같은 말입니다. 성결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이 선언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갖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복음의 핵심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삼위일체를 선언하는것입니다.

### 1.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2세기말의 변증가 터툴리안입니다. 삼위일체는 교리는 어거스틴이 현저하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삼위일체를 말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수많은 무식한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 한참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은 기독교가 오랜 세기 동안에 걸쳐 만들어진 종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무지는 로마서 1장도 안읽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 시대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아직 생기지 않았어도 삼위일체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삼위일체의 제 2위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과 Exactly 정확하게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서두에서 벌써 삼위일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올라가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한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였던 것과는 반대로 자기 나름대로 삼위일체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조잡한 단계에서의 시작이지만 그발생 단계를 추적해 보는 것은 우리들의 사고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 1.1 발생기의 이론

### 1.1.1 가현설(Docetism)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유대인 기독교도들 안에서 발생한 이단이 가현설(Docetism)입니다. 이 가현설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예수님은 영일 수밖에 없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양자론(Adoptionism)으로 변하는데, 가현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유령과 같은 존재로서 환영처럼 이 세상에 존재한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현설이 유일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해해보고자 시도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1.2 양자론

양자론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데,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일진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추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는 “성령을 믿사오며”를 강해할 때 벌써 말씀을 드렸습니다.

### 1.1.3 말시온 이단

그후 주후 2 세기에 말시온 이단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말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한 신이요,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사랑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주장하며, 구약을 부정하고, 오직 사도 바울 만이 참사도라고 하며, 다른 사도들은 모두 유대교에 물든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구약성경을 기독교의 정경으로 인정하셨으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당신 자신을 그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 1.2. 정통 교회 안에서의 대응

말시온 주의나 다른 이단들로 인하여 정통 교회 안에서도 바른 교리를 확립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2 세기 때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다면성을 설명하기 위해 경세적 삼위일체론(Economic Trinitarianism)을 설파했습니다. 아직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이었고, 경세적 삼위일체론이라는 이 말은 후대의 사람들이 부친 명칭입니다. 경세적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1.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다. (God is the Eternal Being.)
2.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의 경륜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직 한 분으로만 계시는데, 당신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실 때, 창조를 통해, 혹은 구속의 경륜속에서 자신을 말씀으로 혹은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경세적 삼위일체론은 성자와 성령이 영원 전부터 영원후까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 계시었다고 하는 내용을 덧붙여 설명했다라면 아무런 약점이 없는 이론입니다.

### 2. 우리가 믿는삼위일체론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도표를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는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인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유일신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삼위의 하시는 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 :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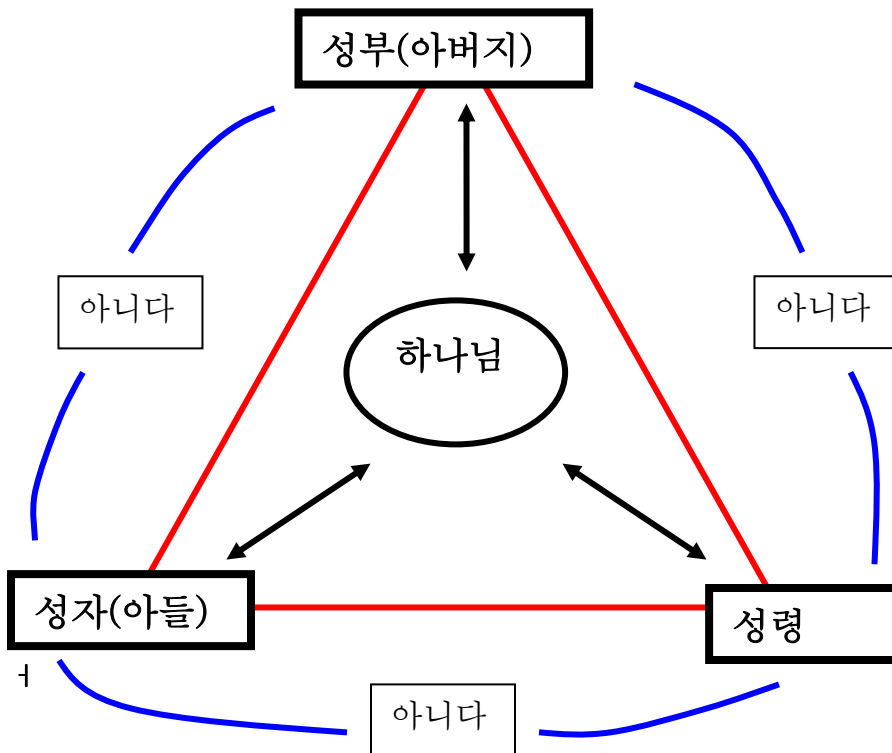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은 예지에 의해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그의 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예정에 의해 구속된 자들을 거룩케 하십니다.

### ‘하나’의 본체와 ‘셋’의 위격



## 2.1 사도들의 정통 신앙적 고백

유대교나 기독교에 있어서나 역사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입니다.

유일신은 영어로는 One Lord 혹은 The Only God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일신에 대하여,

신명기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하나님(요 17:3)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범신론적(Pantheism) gods 과 구별되는 것으로,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천명합니다.

마태 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고,

도마는

요한복음 20:28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2.2 초대 교회때의 정통적 신앙 고백

이와 같이 예수님 때부터 정통적인 신앙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은우리가 공부한 사도 신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 문헌 중 가장 오래된 초대 교회 세례 예식전으로 1 세기 때부터 전해오는 Didache 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일체 신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세기 말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훨씬 전부터, 기독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었어도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을 벌써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 3.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1.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homoiion)이라며, 예수님은 Demi God 이 되어 다신론이 됩니다.
2.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저차원의 구원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성취했는지에 관계합니다.
3.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은 없습니다.
4. 예수님이 신성이 없으시면 하늘의 것으로 덧입는 우리 성화는 헛 것이 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계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과 똑 같은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새사람의 형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을 마음 속에 모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하늘에 속한 새사람으로 덧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옛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고린도전서 15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성취했는지에 관계합니다.